광주·전남 대학생 등록금 연체율 높다

광주 2·전남 2.2%…전국 평균 1.9%

대출 거절 사례도 작년보다 2배 늘어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 돌입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연체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지난 해 보다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노동당 전남도·광주시당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별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신청 건수는 4만3천811건으로 지난 해 대비 3.7%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이상 못 낸 연체자 비율은 광주 2%(916건), 전남 2.2%(535건)으로 전국 평균 1.9%, 서울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 한도초과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1년 만에 배 가량 늘었다. 대출 거절 건수는 광주가 2007년 924건에서 올해 1천765건으로, 전남은 777건에서 1천38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로 인해 학업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민주노동당 전남도·광주시당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운동 선포식을 갖고 광주시·전남도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금 이자는 총 40억원으로 지역에서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일반 대출 금리가 7.3%, 가구 소득에 따른 저리 융자의 경우도 3.3~5.8%에 달해 서민 가정과 대학생들을 옥죄는 만큼 대출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창업지원 자금이나 저소득모자사업 등 정책자금의 금리는 3%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학생 직업능력 평가

10월께 시범 실시

대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가 이르면 10월께 시범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한 평가문항 개발을 9월까지 마치고 올해 안에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를 시범적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평가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1학년 신입생과 4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8일 세계여성의날

광주서 기념행사 다채

광주에서 '세계여성의날(8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연대, 비아 깜페시나(La Via Campesina) 등 국내외 여성농민단체들은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광주여성단체연합도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여성 1천59명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경찰을 앞세운 국민통제, 기업 중심과 서민 무시 때문에 사회통합이 해체되고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성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과 과정을 감시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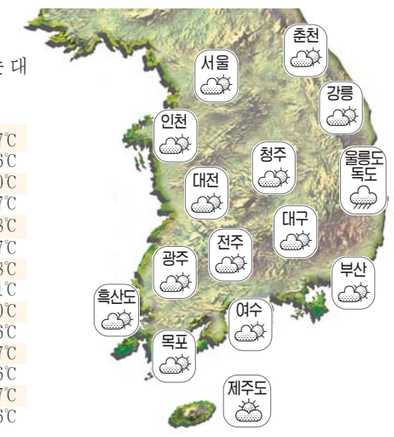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6분 해짐 18시 32분 달뜸 13시 03분 달짐 03시 18분

해안지방 돌풍주의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흐린 뒤 맑음	4/7℃
목 포	흐린 뒤 맑음	4/6℃
여 수	흐린 뒤 맑음	5/10℃
완 도	흐린 뒤 맑음	5/7℃
구 례	흐린 뒤 맑음	4/8℃
해 남	흐린 뒤 맑음	4/7℃
장 흥	흐린 뒤 맑음	4/8℃
고 흥	흐린 뒤 맑음	4/11℃
순 천	흐린 뒤 맑음	5/10℃
영 광	흐린 뒤 맑음	3/6℃
진 도	흐린 뒤 맑음	5/7℃
전 주	흐린 뒤 맑음	3/6℃
남 원	흐린 뒤 맑음	3/7℃
흑산도	흐린 뒤 맑음	5/6℃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	2.0~4.0m
먼바다	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1.5~3.0m
먼바다	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9:54 22:01	02:05 16:02
여수	05:14 17:49	12:05 23: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 씨						
최저/최고	-2/11	2/12	2/12	1/12	2/13	3/11

책 읽어주는 봉사자 5일 광주시 북구 무등도서관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광학원 감사 발표 왜 미루나

광주시교육위, 결과 공개·관련자 문책 촉구

광주 사립학교 전체 감사 요구도

정광학원 이사장의 교원 채용비리 의혹 제기〈본보 2월 2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광주시교육위원회가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이 정광학원에 대한 감사 완료 이후에도 결과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광학원 교원채용 과정 비리의혹과 관련한 교육위원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광학원 교원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위는 "광주 교육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비중과 공헌도가 너무 큰 데도,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잘못으로 교육가족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사학법인마다 교원 채용 과정이 달라 각종 채용 비리 의혹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립학교 교원채용시 교육청에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봉근 위원 등은 광주지역 전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특별 감사와 정광학원의 채용 부정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전원범 의장이 5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광학원 교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윤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교육 관료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사학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면서 "감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루빨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달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16명의 교원을 채용했으며, 이와 관련 이사장이 직접 시 교육청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엔 승진 비리 의혹 진정서

광주 모 고교 교사 … 시교육청 조사 방침

광주 정광학원이 교원채용 비리 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학법인에서 승진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 사립학교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J학원 내 고교에 재직 중인 이모 교사는 최근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감 후보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풀어달라며 진정서를 올렸다.

이 교사는 "지난달 있었던 교감 자격 연수자 선발과정에서 재단이 규정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교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자격 미달로 탈락했던 교사가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선정되고 또 순위도 뒤바뀌어 이사장 결재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정과정에 대한 서류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법인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정확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같은 재단 내의 다른 학교에서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가 하루 사이에 잘못 기재된 점수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 관계자는 "교감 자격 연수자 선발은 법인 규정에 따라 본인 신청,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장 복수추천 등을 거쳐 3명이 최종 선발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시 교육청은 J학원 교감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김대중학술상 공모

전남대, 5월15일까지

전남대학교가 제3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전남대는 5일 "민주·인권·평화의 신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공헌한 국내외 학자, 학술단체, 학술기관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5월15일까지 전남대학교 산학연구처 연구진흥과(062-530-1142)에서 받으며 시상식은 6월8일 개교기념 행사 주간에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과 메달 및 상장이 수여된다. /채희종기자 chae@